

제10장 통일의 전망과 과제

통일은 현실적 문제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세계사의 흐름이나 한반도의 내부상황을 조망해 볼 때, 이러한 인식은 타당하다. 우리에게 분단의 아픔을 안겨주었던 국제냉전 질서는 사라지고, 세계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화해와 협력을 증대시켜 가고 있다. 나아가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위에서 하나의 지구공동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내부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비록 냉전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외양상 단절과 적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남북관계라 할 수 있다. 남북간 위상의 차이가 현저해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북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분명 통일의 전도를 밝게 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통일을 이룰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는 당위와 시대흐름 등 객관적인 여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어진 상황속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현실로 구현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소망으로만 남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시대의 흐름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고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분단의 멍에를 안은 채 우리민족의 역량을 소모하면서 세계사의 뒷전으로 밀려나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을 지탱해 왔던 많은 요소들이 무너진 현실에서 과거와 같은 체제유지 방식들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도 1990년대 들어와 국제정세의 변화와 경제의 침체로 인한 위기를 인식하고 나름대로 변화를 모색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를 채택한 것이나 무역특구를 설치하여 외자유치 노력을 경주하는 일,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외교정책, 남북정상회

담을 추진했던 사실 등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한 토대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노선 변화노력은 체제붕괴에 대한 위기감과 뿌리깊은 중앙집권적 통제체제, 적화전략을 고수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대남전략 등으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앞으로도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상대적으로 변화에 소극적인 세력간에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내외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급변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유리하게도, 또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마침내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다음과 같은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하는 일이다.

평화가 지켜지지 않고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룩할 수 없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충하고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남북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은 6·25 참전 주요 당사국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대화의 틀이다. 4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당사국들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상호 입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기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신뢰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는 평화체제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하고 합의해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일이다.

대남 적화전략이나 폐쇄노선 등 북한의 기본노선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간 진정한 관계개선은 불가능하며, 통일은 더 한층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내외의 상황으로 보아 북한의 개방과 변화는 불가피하다. 북한이 처해 있는 어

려움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개방과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상당한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북한의 개방과 안정적 변화를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 과제들을 합의해 놓은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남북간 화해와 신뢰구축, 인도적 문제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간 모든 현안들이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

새로운 회담과 새로운 합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대로 남북공동위원회 등을 조속히 가동하여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한반도의 안정을 뿌리째 해치고 국제사회의 무력 개입을 불러 들일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요소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스스로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변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급변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건간에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상황을 수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적 역량과 치밀한 사전대비계획을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통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배타적 의미의 ‘자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반도 분단의 연원이 그러했듯이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도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예는 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주변4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주변국의 관심과 참여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며 화해와 협력의 국제적 흐름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국가들의 대한반도정책이 한반도 안정을 이룩하는 방법과 한반도의 장래문제에 대하여 항상 우리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바람직하게 유도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책임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합리적 방안과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국제사회가 이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는 일이다.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튼튼해야 정부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통일정책 추진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특히 통일문제가 현실적 과제로 대두될수록 기본원칙뿐만 아니라 구체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론이 통일되어야 북한의 각종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이 계속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탈냉전의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통일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해이해질 경우, 북한의 대남교란전술에 의하여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지금 상태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 국론이 통일될 수 있도록 더욱 새로운 각오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오랜 염원이자 역사의 순리이며,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통일은 냉전의 진정한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항구적 세계평화를 이루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평화와 번영이 약속되는 21세기 세계공동체를 열어가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통일된 우리나라는 인권과 자유와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여야 하

며, 삶의 질이 보장되는 문화국가여야 한다. 나아가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더 크게 기여하는 도덕국가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복고적 차원의 재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창조이다.